

애월읍 어음1리, 1984.7.20., 김영돈, 김지홍 조사.

김승추, 남·76.

\* 줄거리 : 태학관(太學館)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고향으로 내려왔다. 아버지의 분부로, 어릴 때 배운 서당선생님께 문안을 갔다. 마침 한 여인이 서당으로 찾아와 시집식구의 비문을 써 주도록 간청하였다. 선생님은 자기 제자가 공부를 많이 하였으므로, 제자에게 쓰도록 했다. 비문을 건네주자, 그 여인은 틀렸다고 하면서 투덜댔다. 그러자 선생님이 부사충(父死忠)하고 자사효(子死孝)하니 충효(忠孝)는 일생불망지의(一生不忘之義)라고 써 주었다. 여인은 춤을 추며 기뻐했다. 제자는 자기가 학문을 조금 많이 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다며 반성을 했다. \*

어도1) 스혹교 졸업식에선디, 나가 잇말 좀 말해 보겟다고. 그때 어뎡흐연 나고라(나에게) 학부형 대로 말을 곁으랜 흐연, 앞의 나가게 댜 거라. 그러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졸업흐는디, 여러 분덜은 소혹교 선생님을 잊지 말아사 댜다고.

잇날 워년 부즈집의 즈식이라. 서당공불 다 모치고, 서월 갓어. 서월서대학, 그때는 성균관(成均館)이요. 서월 대학원을 졸업했어. 성균관을 졸업흐연 집의 오니까. 지네 부무네안티 인스홀 거 거든. 게난 아버지가,

“너 서당 댜기는 선생님안티 강, 거 지금도 곁 모르치난.”

팽성 그자 스략초권(史略初卷) 무신 거 멩심보감(明心寶鑑) 이런 거나 모르치는 하르방이라. 그자 아동덩 낱 모르치는 거라.

“거기 가서 인스나 흐라.”

그렇게 아이라게? 태학관(太學館)에서 공부하고 태학관 졸업흐여시니까, 불써 왕초라.

“예. 아버님 말씀 따르겟읍니다.”

갓어. 간, 인솔 드리고. 아 겁나주기에, 즈기가 모르친 제즈주마는, 춤 대학원 졸업흐난. 태학관 졸업흐 건 지금 대학원 졸업흐 거라. 물론 실력이 그만흐거든게.

“는 나안티 천재(千字)를 배웠지마는, 춤 대학원을 졸업흐난 어디 희망흐는가?”

하르방이 영흐난, 그 제즈가,

“머, 희망은 즈연이 댜 겁니다. 즈연이 댜 거요.”

머, 그거 등룡(發龍)댜난. 흐나네 조심흐머는 어뎡흐 정승 판스 위(位)에 올를 건 스실이라.

경흐더니, 어떤 여즈가 종이 훈장 곱고 붓 곱고 베리(벼루) 곱고, 필묵지연(筆墨紙硯) 다 곱추완, 선생 배우레(뵈러) 왓어.

“누게냐?”

“예. 넘어가던 여즈가 여기 와서 미안합니다.”

“들어오라.”

고, 아무디 간 앓안. 하늘 천(天) 따지(地), 하늘 천흐는 것이 잇날은 다 그래요.

“그런거 아이라, 씨아바지 죽어. 아, 이거 장수를 지내자니 스나이가 또 죽어.”

1)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.

이거 기가 맥힐 일이라. 씨아방이 죽영 혼돌만의 또 즈기 남펜이 죽으니. 이거 사름 살지 못헝커라.  
 “헝니 비문(碑文)을 세우겟읍니다.”  
 비문 비석 세울 거라. 헝디 비문 지을라고 스방팔방을 다 돌아바도 읍어.  
 “읍으니, 선생님 그자 생각해 주십시요.”  
 헝니. 이거 스방팔방 다 돌아도 읍어.  
 “나 머 일즈무식헝디, 거 하늘 천 따 지, 천재나 그르치는 선생이 멀 아느냐?”  
 “아, 겨도 좀 써 줍서.”  
 “그러나 기헝(기회는) 좋다. 대학원 졸업 헝 자네가, 자네 그씨 대학원 졸업헝 관계를 비문 헝나  
 지와(지어)주주.”  
 “예, 걱정 맙서.”  
 아, 이젠 대학원헝난. 그 여즈가 종이 내고, 그 할망이 그저온 종이. 창오지 딱 내놓고 붓에 먹  
 골안. 이눔이야게 워년 대학원헝 늑이난, 착착 써 가느디 일필휘지(一筆揮之)라 헝 게 잇어요. 일  
 필 붓, 혼붓으로 확헝게 써내렷주게. 경헝난 그 부인이,  
 “아이 맞수다.”고.  
 “나는 그렇게 아이 맞수다.”  
 고. 춤 낫은 부인이지게. 낫은 부인이라. 턱 뿔자(退字) 낫어.  
 “허이, 거 종이만 혼장 도망갓주머. 거렁청헝게.”<sup>2)</sup>  
 아, 이눔의 할망이 용심(화)을 내거든. 그 하르방이 잇다가,  
 “거, 어째서 자네는 공부도 만헝고 멀헝 헝디, 어땡헝연?”  
 그 사름은,  
 “아, 나는 생각헝연 많이 연구해서 맨들앗읍니다. 경 맨들앗느디, 그 부인이 뿔자헝니가 나는  
 손 떼요.”  
 손 떼고. 이젠 그 선생이 천재짱 그르치는 선생이 어이가 읍어. 선생이  
 “다른 종이 내여노라.”  
 즈기 종이 내여놔.  
 “탁, 나 글 혼구를 쓰구데, 아지망 들어바.”  
 “머 맨들아 줍서.”  
 “부스충(父死忠)헝고, 아버지는 충성에 돌아갓고. 즈스효(子死孝)라, 아덜은 효도에 돌아갓다.  
 이 충효는 일생불망지의(一生不忘之義)라, 충와 효는 일생불망 잇어 불질 아니홀 불망지의라.”  
 뜻 의째(義字) 딱 쓰난, 이눔의 예펜이 춤을 추어. 술영 무시거영 다 곳당 선생 잘 대접헝고.  
 그거 비문 쓴 거 그정 갓어.  
 헝난 제즈가 집의 돌아왔어. 아방신디 강,  
 “서당에 가난 영영힙디다.”  
 “거 보라. 사름은 대학원을 졸업헝고 멀해도, 근본 배운 하르방을 나무리지 말라.”  
 경헝댄 헝여. 영 배우는 사름은 혹자는 아는 책헝영 멀홀 게 아니주.

김영돈·현용준·현길언, 『제주설화집성(1)』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1985, pp.186-189.

2) 행하는 일과 말 따위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사리에 맞지 않고 허황됨을 가리킴.